

도교육청 학생 해외연수 진행

도내 초중고생에 미래의 꿈 선물

일본에 이어 싱가포르서 초중고생 99명 대상 연수 다양한 문화 직접 경험

학생해외연수가 도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미래의 꿈을 선물하고 있다. 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일본 해외문화체험에 이어 싱가포르에서 초·중·고 학생 99명이 지난달 24~28일 까지 해외문화체험 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연수에서 학생들은 아시아의 대표적인 다문화·다종교 국가인 싱가포르가 어떻게 다양성을 통합하고 선진국이 됐는지 알아보는 과제를 수행했다.

특히 학생들은 싱가포르 국립대, 난양이공대, 제임스쿵대학, 아시아 금융 안정화 기구(AMRO)를 견학하며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웠다. 이날 유학생 형·언니와 함께 캠퍼스를 투어하고, 강의실 의자에 앉아 설명을 듣기도 했다. 이 외에도 싱가포르 사이언스센터에 가서 과학체험을 하고, 이쿠아리움, 차이나라온 리본인디아, 아랍스 트리트를 방문하며 다양한 문화를 직접 체험했다. 이어 시티갤러리를 찾아 도시의 발전과 개발과정을 학습하고, 야간에는 싱가포르 플라이어를 타고 정비된 도시의 도로망·상업지구·항만 등을 보며 도시의 야경을 감상하



전북도교육청은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싱가포르에서 학생 해외 문화체험 연수를 진행했다. 사진은 싱가포르 국립대를 찾은 학생들의 모습이다.

기도 했다. 가든스 바이더 베이에서는 다양한 식물과 꽃의 정원을 둘러보고, 아비타로 변신하는 VR체험도 했다. 학생해외연수에 참가한 한 학생은 "푸릇푸릇한 농촌에서 살다가 독특하고 큰 건물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싱가포르를 보니 너무 예뻐다"며 "싱가포르를 왜 다문화의 꽃이라고 부르는지 이번 연수에서 제대로 알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참가 학생들도 "싱가포르 국립대(NUS)가 세계 명문대학인 이유를 알게 됐고, 대학교가 아주 조

용하고 안정적이어서 공부에 잘릴 수 있는 분위기였다", "NUS에서 캠퍼스 생활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있는 대학이 예뻐다" 등 만족감을 보였다. 학생들과 함께 한 인솔교사는 "솔직히 학생들을 인솔하고 교육하는 데 힘이 들었지만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 무엇인가 배우고 있다는 것을 볼 때 힘이 생겼다", "전교육청 총괄하게 수행해서 그런지 학생들이 생각보다 체험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매일 저녁에 소감을 정리하고 교육자료를 작성하는 시간이 학생들에게

매우 유익했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이 해외연수에 참여해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며, 학습과 진로 전환의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해외의 넓은 세상을 몸으로 직접 부딪치고 가슴으로 느낀 재미와 감동, 머리로 깨닫고 얻은 꿈을 오래 간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2월에는 도내 초·중·고 학생 300명이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으로 해외문화체험을 떠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장애학생 해외현장체험 '우수'

도교육청 시민감사관 올 상반기 실시감사 진행 결과

장애학생 해외현장체험학습이 전북교육청 시민감사관 우수 사례로 채택됐다. 이에 따르면 시민감사관은 지난 6월 5~19일까지 상반기 실시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학생해외연수 내실화 방안'을 감사 안전 중 하나로 점검했다. 그 결과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30명을 대상으로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3박 5일간 싱가포르에서 진행한 해외연수를 우수사례로 꼽았다. 이는 평소 장애로 인해 국내는 물론 국외 활동 참여 기회가 제한적이었던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견문을 확장시킬 수 있는 맞춤형 활동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특히 공항 이용에서부터 공공장소에서의 글로벌 매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의 낮은 상황에서 학생들 스스로 도전하고 능동적으로 배우는 삶의 자세를 기를 수 있도록 했던 부분이 높이 평가됐다. 한편, 도교육청은 장애학생들의 안전한 체험활동을 위해 사전답사를 하고, 안전 길라잡이도 자체 제작했다. 임대섭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해외현장체험학습은 장애학생들이 무엇이든지 해보고 싶다는 도전 의식을 갖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장애학생들에게 다양하고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우석대, 장애학생 행동중재 직무연수

호남권역 특수교육 담당 교사 대상... 10일까지

우석대학교 교육연수원은 오는 10일까지 교양관 1층 지역협력세미나실에서 호남권역 특수교육 담당 교사 55명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 장애학생 행동중재 직무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과 함께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장애학생의 행동중재에 대한 특수교육 담당 교사들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긍정적 행동중재 및 단일대상 연구 설계의 적용"을 주제로 진행, 9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온라인 실습이 이뤄진다. 방명예 교육연수원장은 "이번 연수



장애학생의 행동중재에 대한 긍정적인 행동지원 강화로 학교생활 적응을 높여 장애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장애학생과 특수교육 담당 교사 모두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주교대 동창회, 학교민원처리시스템 도입 등 촉구

전주교육대학교 동창회는 1일 성명을 통해 서울 서이초 선생님을 추모하며,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에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학교민원처리시스템' 도입, '교사 개인정보 보호 계획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했다. 나아가, 악성민원을 증폭시키며 사회적 갈등을 양산해 온 학교폭력 가해 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전면 재검토하고,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아닌 특별교육을 받게 하는 등의 강제성 있는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감에는 '교육민원센터'와 '학교출입관리시스템'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아동학대 등으로 신고를

당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이 적극 나서줄 것과, 사법부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피소당한 교원의 직위 해제 처분을 신중히 해 교원을 보호해 달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학부모에는 교육의 수요자이자 아니라 '교육기본법'이 밝힌 '교육당사자'의 한 축으로 교사와 함께 학생을 책임지는 공동의 교육자로서, 부디 내 아이만 바라보지 말고 모두의 아이들을 바라봐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전주교대 동창회는 "교육은 사회와 시민, 교육자와 학습자,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맺은 신성한 약속"이라며 "우리는 교육자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지각하면서 앞으로의 백년을 내다보며 교육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대, 수해 피해지역 학생에 특별장학금 지급

피해 학생들 학업 지원 위해... 오늘 수해피해 복구 봉사 나서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수해 피해지역 학생에 1억원 규모의 총장 특별재난지원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전북대가 거점국립대학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피해 지역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안정적인 학업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전북대는 오는 21일까지 전국의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두고

한 분부 보직자들과 총학생회 학생 등 40여 명이 수해로 피해를 입은 김제 용지면을 찾아 수해복구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양오봉 총장은 "지역과 국가발전에 이바지 할 책무가 있는 국가 거점국립 대학으로서 우리 학생들의 이름을 जो 서류를 갖춰 전북대 학생과(063-270-4141)로 신청하면 된다. 대학 측은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일 양오봉 총장을 비롯

한 분부 보직자들과 총학생회 학생 등 40여 명이 수해로 피해를 입은 김제 용지면을 찾아 수해복구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양오봉 총장은 "지역과 국가발전에 이바지 할 책무가 있는 국가 거점국립 대학으로서 우리 학생들의 이름을 जो 서류를 갖춰 전북대 학생과(063-270-4141)로 신청하면 된다. 대학 측은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일 양오봉 총장을 비롯

건강 취약계층 만성질환 관리·돌봄 리빙랩 구축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 도내 3개 기관과 협약

전주대학교 지역혁신센터 전북지역 문제해결플랫폼은 지난달 31일 지역혁신센터 세미나실에서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한국에이치, 돌봄리빙랩네트워크 등 3개 기관과 건강 취약계층 만성질환 관리 및 돌봄 리빙랩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건강 취약계층들의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증진 활동을 통해 만성질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건강지치력을 향상해 건강한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에 세 기관은 △건강 취약계층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건강모임 운영 및 관리 △혈압계 등 의료기기·인지건강 솔루션 프로그램을 제공함과 동시에 활용 교육 지원 △돌봄 공동체 조직을 통한 건강생태계 구축 △민·관·산·학·연 등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을 통한 돌봄리빙랩 네트워크 구축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 한동승 공동집행위원장은 "만성질환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환자 스스로 자가 관리 능력과 자조 모임을



전주대학교 지역혁신센터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지난달 31일 지역혁신센터 세미나실에서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한국에이치, 돌봄리빙랩네트워크 등 3개 기관과 '건강 취약계층 만성질환 관리 및 돌봄 리빙랩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통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참여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내 돌봄리빙랩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지역문

제 발굴부터 해결까지 도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리빙랩(living lab) 형태로 운영되며, 특히 민·관·공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역문제를 발굴, 해결, 확산해 나가는 혁신적인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전주교대 직원 인사발령

전주교육대학교(박병춘 총장)는 1일 대학본부 2층 회의실에서 직원 인사발령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병춘 총장은 직원들에게 축하의 말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자기 계발을 하고 능력을 발휘해 우리대학이 교육대학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주교대 직원 인사발령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신규임용 ▲순태경 전산서기시보 ▲정기를 행정사기보
 - ◇승진 ▲이호정 대학회계직 8급
 - ◇결임 ▲김년영 행정주사 기초호려 지원센터, 미래교육지원센터 겸임
 - ◇휴직 ▲정승수 대학회계직 미하
- /정은성 기자

전주전대, 취업역량 강화

정보화능력 프로그램 운영

전주전대대학 커플링사업단은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와 공동으로 재학생 17명을 대상으로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화능력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컴퓨터활용능력 2급 자격증 교육과정으로 산업체 수요를 반영해 재학생들의 정보능력 강화를 위해 실시했다. 이에 컴퓨터활용능력 2급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구성해 2주 동안 총 30시간의 교육이 이뤄졌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활용능력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시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커플링사업단 조덕현 단장은 "지역 내 수요를 바탕으로 산업체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정주 인재 양성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난독·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강화

전주교육지원청, 국민대 산학협력단과 협약 체결

전주교육지원청 학력지원센터는 최근 난독 및 난독 현상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대 산학협력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거석 교육감의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기초학력 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력지원센터의 난독 및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강화 목적이다. 이날 협약은 화상회의로 진행, 이만수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교육지원국장, 전주학력지원센터 협력교사, 국민대 산학협력단 단장, ERID센터장 등이 참여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난독 및 난독 현상 학생 진단 및 교육 지원, 난독 진

문가 양성을 위한 상호 협력, 난독 지원 교류 증진 등이다. 한편 국민대 산학협력단(ERID) 원기·쓰기 클리닉센터는 국내 대학 최대 규모로 난독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전문가 팀터칭 방식의 온·오프라인 클리닉을 제공하고 있는 대학 부설 연구기관이다. 이만수 교육장은 "이번 협약으로 난독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실질적인 성장과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양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은성 기자